

금속 3자 통합에 대한 단위노조의 의견

1. 귀하는 3자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귀 노동조합은 3자통합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3. 귀하는 3개연맹이 제안한 통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 3자통합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써 주십시오.

손봉현(현대정공노동조합 위원장)

1. 현총련, 자동차연맹, 금속연맹 등 민주노동운동 진영의 금속관련 3조직의 통합은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조직 논쟁 과정에서 상층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은 분열과 반목 갈등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산별단일노조로 나아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기업별 노조들의 통합을 위해서도 3조직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 우리노조가 소속된 현총련이 3자 통

합을 제안했으므로 초기부터 상집 등 간부 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조합원의 관심이 많이 모여져 있다. 현총련 차원에서 통합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준비중이므로 소속 노조가 독자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현총련 방안을 보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3자간의 단일한 통합안이 만들어 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주요 쟁점은 위원장 선출, 체계, 맹비, 사무처 구성, 통합시기 등이다. 각 조직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간단히 의견을 제출하겠다.

가장 이견이 나타나는 것은 위원장 선출

방식과 체계, 사무처 구성방식이다.

위원장은 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통합시 약 20만 명 정도의 조직이 되지만 조합원의 민주적 대의를 모으고 통합이후 민주집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직선제이다. 조합원의 직선을 통해서 선거과정이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전망을 열어 가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체계는 업종별 분과와 지역지부 중 어느 것을 더 비중 있게 둘 것이냐는 문제로 집약된다. 민주노총 지역분부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40%에 이르는 통합조직의 지부가 민주노총 지역분부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당연히 업종별 분과 체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단위노조별 가입과 활동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약 400개에 이르는 노조 중에서 대규모 노조나 일부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사무처의 구성은 3자통합방식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기용하지는 식의 방안은 통합 이후에 상호 불신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어려운 현재로서는 각 조직에 공평한 비율이 배정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 현총련의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 외에도 재정문제는 대부분 큰 차이가

없으며, 통합시기도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인 정치세력화 사업에 집중하고 하반기 단위노조 선거를 감안하여)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내년 2월 초순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4. 무엇보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조직의 지도력은 곧 통합조직의 지도력 유지,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유연비어가 현장으로 갈수록 생겨나고 있다. 이미 위원장 선거를 의식한 각종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리고 상층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임단투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임단투 직후부터는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창한(만도기계노동조합 위원장)



1. 금속 3자의 통합 의미는 당면해서 기업별노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대내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금속노동

자의 통일단결을 이뤄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금속노동자의 통일단결은 산별노조의 위력한 추진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초기 현총련의 갑작스런 제안으로 시작된 통합논의가 매우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성과를 통합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의 공간을 넓혀내고 한국노동운동의 새지평을 열어가는 첫 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동안 파업투쟁등 임단투로 인해 조합원들과 충분한 공유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7월 23일 있을 임원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금속 3조직통합에 대한 대중적 논의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연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합안을 중심으로 조합원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금속, 현총련에서 제안한 안을 비교분석해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3조직 통합안을 비교해보면 기본체계, 제정과 관련한 안을 제외하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체계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연맹과 현총련의 안과는 다르게 금속연맹에서는 지역대표자회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방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의 기본체계를 공히 업종별 분과와 지역지부로 둔 이유는 업종별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사업의 유리함과 나아가 이를 통한 기업별노조체계를 시급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체계가 이러하다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당연히 나뉘어져야 하며 지역대표자회의로 편제되는 것은 중앙체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의결과 집행체계에 있어 많은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재편일정과 관련하여 금속은 10월경 통합대의원대회, 자동차연맹과 현총련은 98년 2월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통합대의원대회를 한다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 내부적 논의과정을 거쳐 힘있는 통합과정을 밟기에는 매우 촉박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조합원들과의 공유과정을 거칠수 있도록 내년 2월경이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4. 조직통합의 문제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각 조직별로 통합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과 충분한 공유과정이 있고 각 조직끼리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조직 통합과정에서 각 조직은 그동안 가져왔던 기업별 노동조합의 사업방식과 관행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동요구, 공동투쟁에 기초한 조직건설을 목표로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주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적극 통합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만도기계 노동조합의 새 집행부 출범 전 원고를 의뢰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